

지혜나눔 프로젝트

미세먼지



<3-1>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μ m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미세먼지는 눈, 코, 피부, 목 등에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과 중이염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과 달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더욱 취약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 청화장치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가 나뭇잎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



<3-2> 미세먼지로 인해 물을 섭취하는 모습이다.

병 결석으로 인정하고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가 없어도 미세먼지 나뭇잎 이상 시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 유아 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첫째,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만약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둘째, 평소 면역력 강화를 위한 생활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습관에는 외출 후 손 씻기, 충분한 수분섭취와 영양보충,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다. 학부모와 유아교육 기관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책과 미세먼지 예방법에 대해 잘 숙지해 유아들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대전 유아교육진흥원 숲 체험 프로그램



<3-3>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숲의 모습이다.

대전 유아교육 진흥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2018 찾아가는 더불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키즈 카페나 실내 놀이터에서 노는 요즘 아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전 유아교육 진흥원은 지난 3월 숲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신

청을 받아 대전 지역의 유치원 중 17개원을 선정해 각 유치원의 장소, 날짜, 시간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숲 해설가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유치원의 바깥 놀이터, 인근 공원과 숲에서 유아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 교육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2일 처음으로 대전 삼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학교 운동장의 아름드리나무와 봄의 꽃과 풀을 보고 느껴보며 '봄과 함께 눈뜨 친구들', '나만의 자연사박물관', '내 친구 꽃·풀 소개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전 유아교육 진흥원의 편서향 원장은 이 프로그램이 "유아기부터 자연과 교감하는 경험을 통해 유아의 신체·정서발달뿐 아니라 인성과 성품의 기초가 다져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번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을 느끼는 기회를 얻길 바라고 숲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어린이로 자라길 바란다.